

# ‘이대 성상납’ vs ‘대파 875원’ 언행 논란… 민심 달랠수 있을까

〈김준혁 민주당 후보〉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 총선 유세현장 가보니

### 경기 수원정

능력·공약 보단 과거 언행에 입방아 여야 양측 논란들 터지면서 ‘안갯속’ 김 후보 “경솔했고 진심으로 반성” 이 후보, 사과 입장내고 고개 숙여

“학생들은 눈인사도 해주고, 가끔 오시는 어르신들은 손도 잡아주시고 그래요.”

제22대 총선에서 수원정에 출마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일 울전제2공영주차장 건너편에 성균관대학교 후문 앞에서 점심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했다.

봄을 맞은 대학생들은 무표정으로 인사를 받으며 점심을 먹으러 갔지만, 백 후보는 연신 두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자신을 홍보했다. 가끔씩 지나가는 중년 여성과 남성들은 백혜련 후보와 악수하면서 건승을 빌기도 했다.

수원특례시에 있는 5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중 유세 일정을 전날 미리 공지한 후보는 수원정의 백혜련 민주당 후보와 수원무에 영태영 민주당 후보가 유일했다.

수원 선거구 중에서도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곳은 ‘수원정’이다. 수원정은 수원의 동쪽을 관할하는 선거구로, 국민의힘에선 범죄심리학자 출신으로 각종 범죄고발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적 분석을 한 이수정 후보가 출마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역사학자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출마 후보가 2일 수원 영통구 매탄하늘채아파트 앞에서 시민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출마 후보가 2일 매탄하늘채 아파트 앞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박태홍 기자

자 수원 화성을 알리는 데 역할을 한 김준혁 후보가 출마했다.

다만, 이들이 사람들의 입에 거론된 것은 능력이나 공약 때문이 아니라 언행 논란 때문이었다.

이수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소재 하나로마트에 들러 정부 지원을 받아 할인된 대파 가격 875원에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자 한 방송에 나와 한 단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해 이슈를 키웠다. 대파 관련 영상을 하나 더 찍어 입방아에 오른 이수정 캠프는 사과 입장을 내며 고개를 숙였다.

직업이 역사학자인 김준혁 후보는 과

거 유튜브에 출연해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을 시켰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것이 논란이 됐다.

2일 수원시 영통구 매탄하늘채아파트 앞에서 만난 김준혁 후보는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사료와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이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정 많은 시민들은 이 후보의 대파값 논란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은 그날 저녁 김준혁 후보의 과거 유튜브 방송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라고 김 후보에게 권고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는 정치 신인으로서, 제 과거의 발언이 너무나 경솔했음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사과 입장을 냈다.

민주당 지지자의 생각은 달랐다. 매탄하늘채 아파트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피켓을 들고 김 후보를 지지하던 김모씨는 “역사학자로서 그런 말도 못하면 그게 무슨 역사학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검은색 강아지를 안고 있던 그는 김 후보와 대화를 나누던 중 “후보님, 국회 입성하시면 저희 집 강아지처럼 국민 말 잘 들어야한다”고 당부하기

도 했다.

이 지지자는 “제가 양배추를 일주일 에 한 통씩 사먹는다. 그런데 몇주전까 지 양배추가 1통에 3000원이었는데, 이제는 반통에 3000원”이라며 “이제 양배추도 못 먹게 생겼다”며 서민 먹거리 물가 상승에 실망한 눈치였다.

김 후보가 다음 유세 장소로 이동한 지 한 15분 정도 됐을까. 하얀 바람막이를 입은 이수정 후보도 매탄하늘채아파트 사거리에 등장했다. 이 후보는 횡단 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나눠주고 아파트에서 열린 장에 들러 주민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지지자는 김 후보의 지지자와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 중 한 명은 김 후보에 대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수정 캠프 관계자는 선거 판세에 대해 “수원 5곳 선거구 중 수원 정 지역 구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했었다”면서 “지금은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논란들이 터지면서 출렁였다. 안갯속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선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백중세를 예측했다.

한편, 수원은 수원갑에 김승원 민주당 후보, 김현준 국민의힘 후보, 정희윤 개혁신당 후보, 수원을에 백혜련 민주당 후보, 홍윤호 국민의힘 후보, 수원병에 김영진 민주당 후보, 방문규 국민의힘 후보, 수원정에 김준혁 민주당 후보,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수원무에 영태영 민주당 후보, 박재순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인구 80만명 밑으로 떨어져… 도시성장 위한 논의 시급”

尹 대통령 지지율 5%p ↓

## 인터뷰 김기표 부천을 민주당 후보

“부천 성장·도시가 가진 한계 잘알아 타 정치인보다 창의성·유연함 갖춰” 지역 경제 선순환되는 구조 만들 것

“부천이 지금의 김기표를 길렀고, 언젠가는 그런 부천에 보답해야한다는 생각을 품고 살았다.”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은 김기표 후보(51)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정치로 김기표를 길러낸 부천에 보답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김 후보는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태어났지만, 10살 즈음에 학업을 위해 큰 누님이 있던 경기도 부천시로 상경했다. 부천에서 부천북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고등학교를 졸업한 김 후보는 서울대에 합격, 이후 검사로 임용돼 굵직한 수사를 하는 등 법조인의 경력을 쌓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을 역임했다.

그는 정권이 바뀐 후 “정의와 공정이란 단어로 국민을 현혹해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은 김기표 후보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기표 캠프

출마 이유를 밝혔다.

검사 출신인 그는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진 권능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은 ‘내 편 아니면 네 편, 네 편 아니면 내 편’ 식의 철저한 이분법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를 막고자 문재인 정부 때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어렵사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저는 부천에서 초, 중, 고를 나왔다. 부천의

성장과 도시가 가진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또한 기존의 정치인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창의성, 유연함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부천시의 미래에 대해 “중동 1기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재건축 등 재 정비의 틀은 갖춰졌다”며 “하지만 중동의 경우 1기 신도시 중 용역률이 가장 높아 주민들의 부담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 역세권과 상동에 약 2000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계획이 있고, 중동 신도시 재개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지금도 심한 정체를 겪는 김주로, 수도권제1순환도로 등 구간 교통상황이 참담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저는 중동1기 신도시 재개발 완료시점 이전에 수도권 제1순환로의 지하화가 완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본인의 또 다른 지역 공약인 ‘글로벌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추진해나간다면 부천이라는 도시 내에서 제대로 된 산업으로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창출된 일자리로 시민들의 소비는 늘어날 것이며 제대로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부천은 과거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성장하는 도시였다. 그러한 부천이 어느새 인구 80만 명 밑으로 떨어지고, 기업도 유출되면서 도시성장이 꺾인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천 전체의 발전동력을 무엇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전 같은 시기 조사한 지지도보다 5%포인트 내린 34%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연합뉴스TV의뢰로 지난달 30~31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2.4%,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 긍정은 34%, 부정은 61%로 나왔다. 모름·무응답은 5%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지난달 2~3일 조사(39%) 대비 5%포인트 하락, 부정평가 역시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대부분 권역에서 하락이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지율은 46%로 직전 조사(57%) 대비 11%포인트 내려 낙폭이 가장 컸다.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이 9%포인트 하락한 45%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 지지율은 서울이 3%포인트 내린 35%, 인천·경기는 6%포인트 내린 28%로 조사됐다. 대전·세종·충청은 변동이 없는 39%로 나타났으며 강원·제주 지지율은 직전 조사(36%)보다 12%포인트 오른 48%로 조사됐다. /박태홍 기자